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8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채현일 · 박지원  
이상식 · 양문석 · 김문수  
이재강 · 민병덕 · 김 윤  
송재봉 · 김우영 · 복기왕  
윤종균 · 박해철 · 이병진  
안태준 · 박상혁 · 박정현  
임호선 의원(19인)

찬 성 자 : 1인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행법 제251조(후보자비방죄)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· 방송 · 신문 · 통신 · 잡지 · 벽보 ·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)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·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

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’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(2024.6.27. 2023헌바78).

이에,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’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51조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1조 본문 중 “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)”를  
“후보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第251條(候補者誹謗罪)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・放送・新聞・通信・雜誌・壁報・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<u>候補者(候補者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)</u>,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・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다만,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.</p>	<p>第251條(候補者誹謗罪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<u>후보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